전문성 갖춘 대중역사서가 필요하다

역사 대중화에 대한 두가지 시각

박종기 |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이덕일 |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90년대 들어서면서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사회 민주화와 세계사적인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역사의 대중화 현상은 인문출판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견인차로 자리잡았다. 대학의 전문 역사학자와 대중역사서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역사학자를 모시고 역사 대중화의 공과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본다.

박종기 ——— 오늘날 역사의 대중화는 하나의 대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 즉 군사독재가 마감되고 시민운동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정치논리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문화유산이나 과거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사적인 변화와 관련됩니다. 정보화사회가 진척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학도 더 이상 전문학자들만의 언어와 기호로 소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 특히 TV의 사극, 역사 다큐멘터리 등도 역사 대중화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부실한 역사교육이 대중화 요청

이덕일 ——— 역사 대중화가 대세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국정 교과서 체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세계는 개방화되고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국정교과서 체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영삼 정권 때는 각 대학에서 국사가 선택과목이 됐습니다. 누구나 대학의 국사교육 빈곤에 대해 비분강개하면서도 막상 대학 내에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행 국정체제와 대학의 국사교육 부실이 역사 대중화의 저해요소입니다.

인문출판의 르네상스 이끄는 대중역사서들.

박종기 ——— 역사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문제제기를 듣고 생각한 것인데, 학교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 대중화가 대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부실한 역사교육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역사 대중화를 요청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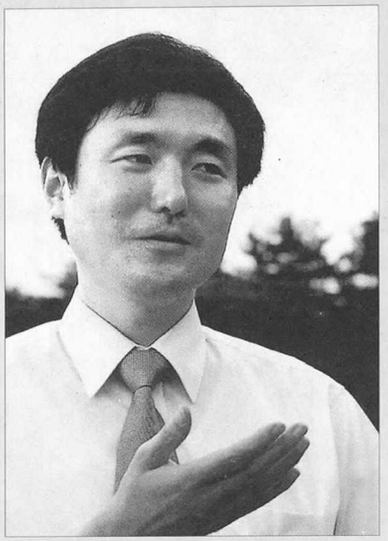
이덕일 ——— 학교의 역사교육과 대중 역사서가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대립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 역사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생활사·풍속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역사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계의 연구성과가 이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 축적됐나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히 역사학은 최소한 10여년 이상 훈련해야 사료의 해독능력과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역사서들은 널리 알려진 몇몇 사료만을 재구성함으로써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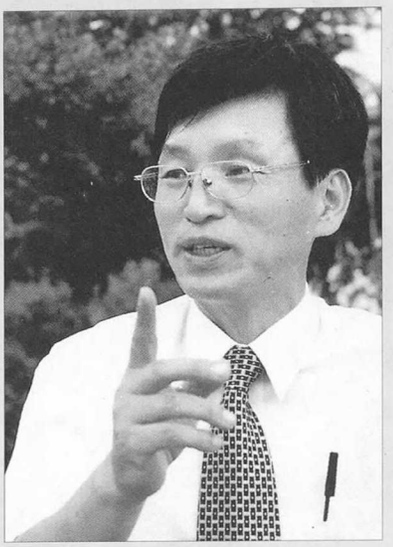
박종기 ——— 역사 대중화는 전문성과 대중성이 서로 맞물립니다. 이 양자의 매개고리는 출판시장이기 때문에 출판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대중화를 위해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전문출판인들이 양성돼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출판사들의 경우 역사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자리잡으면서부터 성공적인 출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대중화의 저해요인이라 할 수 있는 베끼기, 통속성, 중복출판 등의 문제는 출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사실 전문 역사학자들이 대중화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출판현장에서 대중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 출판인들이 전문 역사학자들을 대중 역사서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한 사회의 당면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학자들이 발언해야 합니다."



이덕일 소장



박종기 교수

"역사 대중화는 단지 역사서가 많이 읽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인과의 학문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덕일 ——— 덧붙여서 전문역사가들이 영상매체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TV 사극을 제작할 때 역사 전문위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한두 사람이라도 참여시키면 해석상의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단지 드라마일 뿐이라고 외면해버리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사극을 거의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방송의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기 ——— 앞으로 전자·영상매체가 인쇄매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영상매체를 통한 대중화에 역사학자들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자·영상매체의 대중화 작업에도 역사학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덕일 ——— 이제 대중 역사서가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에 대해 논의해 보지요. 그 동안 대중역사서의 성과는 무척 많았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역사서들이 출간됐습니다. 학술논문만 쓰던 역사학자들이 동참함으로써 역사서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박종기 ——— 역사 대중화는 단순히 역사서가 많이 읽힌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역사 대중화의 필요성은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역사 대중화는 대중들이 단순히 역사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교교육에서 빠뜨렸던 역사지식이나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역사 대중화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와 민족, 그리고 주변세계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에 대해 올바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은 역사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학은 도덕적인 선악을 따지는 당위의 학문이 아니라, 사건과 사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묻는 인과의 학문입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그런 사고는 사회적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힘을 길러주며, 결국 역사 대중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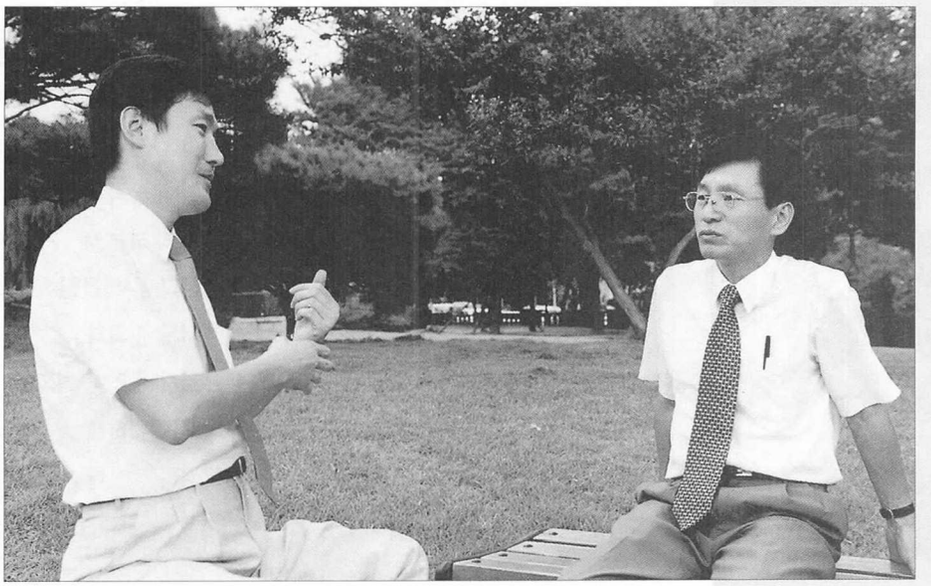
국수주의, 통속성 경계해야

이덕일 ———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은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가치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교과서를 통해서 단 한번도 감동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역사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심성을 키우고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파악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현행 교육체제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박종기 ——— 어쩌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역사 대중화의 특징은 학교교육에서 받은 역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씻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대중화의 이런 현실적인 목표에 비춰볼 때 개인의 자각과 사회 민주화라는 대중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로서는 하나의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도 대중화 작업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덕일 ——— 학계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의 경우, 전공분야는 근현대사지만 독자들은 거의 대부분 고대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학계, 특히 고대사 연구자들이 일반인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외면해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박종기 ——— 우리나라 대중들은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것은 식민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재야사학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정치정세와도 관련되지만, 지나친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 경향은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대중 역사서의 위험성으로 통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중성과 통속성은 구별돼야 합니다. 대중성은 역사적 진실과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대중과 공유한다는 것을 뜻하며, 역사 대중화의 바람직한 측면이라 생각하지만, 통속성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역사를 서술하거나 선정주의로 흐르는 것으로 이런 대중화는 위험한 측면이라 할 수 있지요. 국수주의 및 통속적 경향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대중 역사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균형잡힌 시민의식을 저해합니다.



"오늘날 역사의 대중화는 하나의 대세입니다. 국수주의와 통속성 등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대중화는 개인의 자각과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전문 역사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사 대중화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 삼청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박종기 교수(오른쪽)와 이덕일 소장

이덕일 ——— 국수주의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식민사학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역사학에는 두가지 조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발전시킨 민족주의 역사학이 있었고, 식민지하의 국내에서는 실증주의적 역사학이 자리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배제됐고, 해방 이후 실증주의 역사학이 주류를 차지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이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역사학의 담론체계 바꿔야

박종기 ——— 아마추어 역사가들의 공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 대중화의 초기단계에서 아마추어 역사가들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일본이나 서양의 경우 아마추어 역사가들이 역사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역사 대중화의 초기와 과도기 단계에서는 아마추어 역사가들의 역할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 역사학자들의 관심과 참여, 전문 출판인들의 노력에 의해 아마추어 역사가들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역사 대중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현재 우리의 역사 출판시장에서 생산업자인 전문역사가와 유통업자인 출판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거리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존의 담론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역사 대중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근대 역사학은 식민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의 대립 극복과정이었으며, 이에 매몰돼 왔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제3의 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에서도 제3의 역사학이 요청됩니다. 제1의 역사학이 식민사학이었다면 제2의 사학은 반식민사학 혹은 민족주의 사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역사학이 무엇인지는 아직 규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오늘의 입장에서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전통과 현대의 접목이라는 문제로 역사학의 담론체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영합하는 역사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권으로 읽는~〉류의 책이 수십만권 나갔는데 역사가들이나 출판인들이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류의 책은 왕실의 역사이자 왕족의 피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중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전혀 맞지 않지요.

이덕일 ——— 역사학의 담론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선생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식민지와 냉전체제를 지나 오늘날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한 사회의 당면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전망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것에 대해 발언해야 합니다. 역사학은 미래학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박종기 ——— 나무가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역사 대중화가 꽃을 피우려면 뿌리인 전문 역사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이제는 전문 역사학자들이 사회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사실이 어떠했는가 하는 죽은 역사가 아니라, 과거 사실을 오늘 우리시대의 과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역사 대중화도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역사 대중화가 학교 역사교육이 지니는 맹점에 대한 대안의 단계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대한 자각,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으로 그 방향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문 출판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화의 현장에 있는 전문 출판인은 그것을 대중에게 묻고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대중 역사서를 기획 출판해야 합니다. 전문 역사가와 전문 출판인의 결합은 역사 대중화의 도약과 지평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덕일 ——— 우리 사회에서 역사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단이 부족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역사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 · 박천홍 기자